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태건 지음

기독교 가치관 담은 詩心

시향문학화장이자 송일교 교사인 이태건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무화과나무 아래서'(미디어민)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무화과 아래서 기도하는 성경 속 예수님을 모티프로 삼은 시들이 다수 들어 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시들은 특유의 맑은 감성과 어울려 잔잔한 울림을 준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가지 몇 개 꺾이며 웃음 잃은 사람처럼/ 하얀 피를 흘렸다/ 묻어 두었던 내 슬픔의 뿌리가 흠뻑 젖어 떨어졌다/ 누구나 아픔의 색깔은 같구나/ 몇 천 년 동안 얼마나 가슴 치며 살았을까"(무화과나무' 중에서)

표제시 '무화과나무'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정감과 일상의 감동을 섬세하게 교묘한 작품이다. 아픔을 수용하고 삶이라는 모습에서 시인의 시적 저항을 엿볼 수 있다. <미디어민·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커뮤니케이션 권력

마누엘 카스텔 지음

정치·커뮤니케이션 역학관계

한때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권력은 시민에게 이양되고 국가의 통제도 약화된다는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보수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지배할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처럼 매스 미디어에 대한 국가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로 알려진 스페인의 마누엘 카스텔이 펴낸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은 현대의 정치와 커뮤니케이션 역학관계를 다룬다. 저자는 정보화 시대에 진입한 각국 정치권력과 미디어 실권을 분석하면서 각각의 탈규제정책이 공공의 이익보다 금융 자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권력은 게이트키퍼와 미디어 개입 등을 통해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인지심리학과 뇌신경과학의 성과들을 접목,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체계화한다. <한울·5만9000원>/박성천기자 skypark@

동방예의지국 조선...사실은 동방노예지국?

조선노비열전

이상각 지음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인데 재물로 취급하여 우마와 맞바꾸곤 합니다. 요즘에는 말 한 필로 노비 두세 명을 사고도 남으니 우마가 사람보다 귀중한 것입니까? 공자께서는 마구간이 불타자 '사람이 다쳤는가?'라고 물었을 뿐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으니, 곧 사람을 가축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노비 매매를 금하지 않으면 세상의 도리가 혼미해져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조선노비열전' 중에서)

조선은 동방노예지국이었다? 무슨 말인가. 익히 아는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면 조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소 과장일지 모르지만 사회 신분제의 관점에서 조선이 노비사회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노비여도 대대손은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

대대로 이어진 족쇄

멸망의 씨앗 품은 비정상적 신분제도

다.

속담에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향도 못 된다"는 말이 있다. 태생이 천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별 수 없다는 의미다. 조선 시대 노비의 처지를 빗댄 것으로 이보다 안타까운 속담은 없을 듯하다.

저자는 조선 양반들이 고조선의 '팔조금법'을 들어 노비제도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본다. 고대 은나라 현자인 기자(箕子)가 사회정화와 문명 개조 차원에서 노비를 들여왔다는 것이다. '한서'에 수록된 팔조법금에 따르면 도둑질하다 잡힌 남자는 노(奴)가 되고 여자는 비(婢)가 되어야 했다. 또한 후대 부여에서는 살인자는 처형했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물론 삼국시대에도 노비제도가 있었다. 고구려 미천왕은 현토군을 공격해 8000명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이 노비가 되었을 것은 불문가지다. 신라는 포로노비, 인신매매, 세습노비가 뒤섞인 노예 국가의 전형이었다. 고려도 사노비와 공노비를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세습과 매매가 되었고 후자는 반역 등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었을 때 신분이 바뀌었다.

조선 노비제도의 근간은 반상제(班常制)와 양천제(良賤制)의 이원적 구조였다. 법제적으로 양반과 상민의 반상제를 내세우면서 양인과 천민이라는 양천제



노비 문서, 인장이 없으므로 손바닥을 그려 넣었다.

를 병행했다. 이후 양인은 다시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흥미로운 것은 양반·중인의 구분은 기독교의 흥망성쇠와 연계되었다. 천민은 '인간이나 아니냐'라는 이분법으로 규정되었는데 짐승처럼 거래되는 노비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강고한 신분제에서 대부분 노비들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위정자들은 시스템에 따르는 이들에게는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기존 질서에 따르지 않는 '이단아'가 있기 마련. 제도의 허점이나 거센 저항을 통해 '팔자'를 바꾸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물론 성공한 이후에도 별종으로 취급되거나 비주류를 면하지 못했지만)

서인의 제갈량으로 통했던 송익필, 상례문자로 명성을 날렸던 유희경, 천제시인 홍세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천민 출신에서 과학자로 발돋움한 장영실, 조선 최대 토목전문가 박자청, 첨구술의 대가 의관 허인 등도 특별한 존재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노비제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1729년(영조5) 경상도 울산 호적대장에는 양반호가 26.29%이던 것이 1867년(고종42)에 65.48%로, 노비호는 13.93%에서 0.96%로 줄어들었다. 백성의 99%가 양인화되었다는 방증이다.

두 번의 큰 전쟁(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지배층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고, 시장경제의 발달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했다. 여기에 곡식을 헌납하면 면전을



드라마 추노의 포스터

하락하는 납속책의 시행과 국가 행정력이 미미로 신분제타파 가능해진 탓이다. 결정적으로 노비제도가 철폐된 것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1894년(고종31)년 친일내각이 갑오개혁을 단행되면서였다.

저자는 조선의 멸망을 시대 탓이거나 외침으로 보지 않는다. "노비가 마소보다 싸구려로 팔릴 때가 조선의 전성기였다면 양반이 개질량이라 조소받으며 결실을 맺을 때 왕조는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혹자는 시대를 말하고 외침을 들먹이지만 조선의 비정상적인 신분제도는 그 자체로 멸망의 씨앗을 잔뜩 품고 있었다." <유리창·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변화의 경계에 선 당신



나의 빈틈을 통과하는 것들

송은일 지음

광주일보 신춘문예(1995년)와 여성동아(2000년) 장편 소설로 등단했던 송은일 작가가 데뷔 20년을 맞아 세 번째 소설집 '나의 빈틈을 통과하는 것들'을 발간했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창작집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달리 살 것이 보이지 않는 현대인들을 위한" 휴식의 역

할을 하는 중단편 소설 8편을 담고 있다. '움직임과 정지 사이의 기승전결', '나의 빈틈을 통과하는 것들', '타자가 있다', '나비의 동굴'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틈'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다. 한마디로 삶에 치이고 병마에 시달리는 그러면서 뭔가 변화의 경계에 놓인 이들이다.

표제작 '나의 빈틈을 통과하는 것들'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버거워하는 남자와 개명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두 남녀가 도시 생활을 접고 귀향을 하면서 얽히는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나비의 동굴'에는 삶에 지친 남자가

어머니 집에 있는 뒤란의 동굴로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자신을 다독이며 삶을 추스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맹렬한 오후'의 옷가게 주인은 전망 부재의 삶을 힘들게 버티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일상을 다룬다. '파우스트와 나의 케이'는 케이와의 관계를 통해 파우스트가 되어버린 주인공이 남녀의 사랑, 삶과 예술의 관계를 성찰한다.

이렇듯 8편의 소설은 세파에 찌든 인물들에게 숨을 고르고 삶을 추스를 수 있는 '틈'을 열어준다. 작품에서 틈은 한 상황과 다른 상황 사이에 놓인 '여유'의 의미로 다가온다.

<북민·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럭셔리 지쳐 평범함으로 회귀



트렌드 코리아 2015

김난도 외 지음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21세기 험릿'과 '썸'타는 사람들, 희생정신을 벗어버린 '진격의 할머니', 셀피족이 벌이는 '일상의 자랑질' 향연... 2015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다.

올해로 7년째 접어드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2015년 전망은 'COUNT SHEEP'으로 모아진다. 해마다 그 해의

띠 동물이 운을 맞춰주는 것처럼 이 키워드는 '양 때'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처럼 안온하면서 소소한 소비자들의 일상을 전하고 있다.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대한민국 전체가 결정장애에 시달리면서 '썸' 현상이 더 대중화 되고 셀피족과 어번그레니, 골목길 순례자들이 2015년 대한민국의 소비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시선을 끄는 것은 '놈코어(Norm-core)' 현상이다.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것이 트렌드의 넘코어는 럭셔리에 지친 이들이 평범함으로 회귀하는 현상이다. <미래의 창·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

(유)신호개발

교통신호기 및 내·외선 전기공사

사무실 | 목포시 후광대로 143번길 12-6
대표이사 | 신 승 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	♀	♂	♀	♂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상선,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디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무자녀 남성' 희망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4명 010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